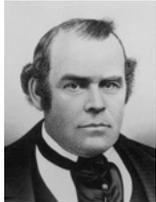


“존엄과 위엄”

십이사도 정원회의 팔리 피 프렛(1807~1857) 장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미주리주 리치몬드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 지루했던 밤들 중 어느 밤에, 우리는 자정이 지날 때까지 자는 듯 누워 있었다. 프라이스 대령이 보초들의 지도자였는데 보초들이 파웨스트와 인접 지역에서 ‘물몬들’에게 자행한 짓을 . . . 서로에게 늘어 놓는 동안, 외설적인 농담, 진저리나는 욕설, 끔찍한 신성모독과 추잡한 말들을 몇 시간 동안이나 들으면서 우리의 귀와 마음은 고통으로 얼룩졌다. 심지어 그들은 부인과 딸, 처녀를 강제로 겁탈하고 남자와 여자, 아이들의 머리를 쏘거나 때려 부순 일을 자랑하기도 했다.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도 불쾌하고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고 의분이 가득차게 되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수들을 꾸짖고 싶은 자신을 거의 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조셉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 . .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마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외쳤다.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의 말은 이러했다.



‘잠잠하라, 너희 지옥의 악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하노라, 잠자코 있으라!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서 그런 말을 듣지 않겠노라. 그러한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든 나든 지금 즉시 죽으리라!’

그는 말을 멈추고 당당하고 위엄 있게 똑바로 서 있었다. 족쇄에 묶이고 무기조차 없었지만 그는 천사처럼 고요하고 침착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기죽은 간수들을 바라보았다. 간수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내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렸고, 무릎을 후들거렸으며, 구석에 웅크리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그에게 용서를 빌었고 다른 간수들과 교대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 . . .

나는 왕국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왕실의 왕좌에 왕관을 쓰고 앉은 왕, 그리고 황제들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존엄과 위엄은 단 한 번, 한밤중에 미주리주의 이름 없는 마을의 지하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보았다.”(*Autobiography of Parley P.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210~211)

- 이 기록에서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에 관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